



부부 음악가

김주혜·정중한

오클랜드 음대를 같이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의 같은 대학교에서 나란히 피아노과 교수로 활동 중인 부부가 있다. 오클랜드 대학에서 처음 만나 같은 교수님 밑에서 사사 받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나 공부하는 학교가 달라 7년간 장거리 연애를 했다. 결혼 후에도 직장이 달라 2년간을 떨어져 지내다가 지금은 같은 대학교에서 부부 교수로 일하는 김주혜씨와 정중한씨가 이번에 공연을 하기 위하여 오클랜드를 방문한다고 한다. 미리 이 메일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안녕하세요? 그간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셨군요. 중한씨는 10년 전에 2008년도에 한국인 최초로 Emerging Artist로 뽑혀 연주회를 했던 걸 계기로 저희 코리아타운에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주혜씨는 한우리 교회에서 남매 두 분이 음악 봉사하던 것이 생각나네요. 안보이시더니 미국으로 가셨었군요. 따로 따로 알고 있던 두 청년이 이제는 이렇게 부부로 계시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주혜 ㅎㅎ 그렇죠? 저희 부부는 참 인연이 많아요. 제가 피아노를 시작한 계기는 피아노를 전공하신 어머니의 영향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음악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좋은 피아노 곡들도 많아서 그 곡들을 제가 직접 치고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무렵 부모님께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Rae de Lisle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클랜드 대학에서 피아노 학사, 석사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재학 중에 Christchurch Concerto Competition에서 입상을 했으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뉴질랜드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Michael Houston이 개최하는 Kerikeri piano competition에서 우승을 하며, 많은 자신감도 얻었고, 뉴질랜드 곳곳에서 독주회(Auckland university에서 주최하는 Emerging Artist Concert)와 협연(Bach Musica)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 석사 과정을 졸업을 할 즈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음악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곳에 원서를 넣고 오디션을 다니던 중에 뉴질랜드 출신 피아니스트 Dr. Read Gainsford 교수님이 플로리다 주립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곳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박사 과정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피아노 경연대회를 나가서 Chapman competition이라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그 외 여러 곳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으로 뉴질랜드 12명의 작곡가들이 각각 자신의 곡을 수집한 Landscape Preludes라는 collection을 접하게 되었고, 그 중 뉴질랜드에서 오랫동안 작곡 활동을 하신 네 명의 작곡자들(Jack Body, Jenny McLeod, John Psathas, Gareth Farr)과 인터뷰를 통해 이분들이 발표하신 4 곡을 피아니스트한 시점으로 탐구하고 분석하여 미국에서 뉴질랜드 곡을 한층 더 친근하고 교육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미국 논문사이트에 출판되어 있

습니다. 그 후 학교를 졸업한 해에 감사하게도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라는 주립대학에서 피아노 교수로 5년간 재직하였고, 현재는 남편과 함께 Lee University에서 피아노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중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어머니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피아노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곧 피아노 선생님께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2살이 되던 해 부모님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이민 후 뉴질랜드에서 피아노 공부를 이어갔으며 대학 입학 전 여러 피아노 대회, Northshore Piano competition, Kapiti Coast National Piano competition, IRMT Piano Competition 등에서 입상을 통하여 자신감과 함께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uckland University Academy에서 Rae de Lisle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학업 중에 콩쿨에 참가하여 Kerikeri Piano Competition, Christchurch National Piano Concerto Competition 등에서 입상을 하였습니다. 솔로 연주와 협주곡 연주는 Radio New Zealand와 World TV를 통해 New Zealand 전역에 방송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 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of New Zealand, Auckland University Symphony Or-



사진 | 연주 후 학생들과 함께 찍은 모습

chestra, 그리고 Auckland Youth Orchestra와 협연을 하며 연주자로서의 경험을 쌓아 나갔습니다.

오클랜드에서 학업을 마칠 즈음, 외국에 나가서 음악 공부를 더 하며 제가 가진 꿈을 펼쳐 보고 싶었습니다. 2009년 오클랜드대학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미국 내 음대 랭킹 1위인 Eastman School of Music에서 세계적인 피아노 대회(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수상자이신 Barry Snyder 교수님 사사 하에 특별 장학금을 받고 피아노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동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피아노 박사학위와 음악이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미국 학업 중에 피아노 협연 경연 대회를 나가 입상을 하여 Eastman Philharmonic Orchestra와 협연을 하였습니다.

희귀한 역사적인 연주를 음악이론 그리고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피아노 연주 기법을 연구하였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피아니스트들의 연주 해석과 비교를 템포 루바토(Tempo Rubato)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했으며, "Structural Hearing of Rubato"라는 제목으로 대위법 및 연주 조화에 중점을 둔 음악 연주의 템포 변동에 대해 교육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를 논문으로 발표했고, 미국 내 음악 학회인 MTNA (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와 College Music Society에서 연구 논문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Eastman 음대를 졸업한 해 Southwestern Oklahoma State University 및 Jones County Junior College에서 피아노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2017년 가을부터 Lee University에서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하며 독주와 작곡과 함께 양상블 연주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미국에서의 활동도 소개해 주세요.

김주혜 저와 제 남편은 미국 테네시 주(Tennessee)에 있는 사립학교 Lee University에서 피아노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 후에 유명한 아티스트



사진 |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에서 비올라 교수님과 함께 Faculty 리사이틀 연주

저는 또한 20세기 초반의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들이 녹음한



사진 |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에서 연주 후에 Lee University에서 온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찍은 모습

들과 연주할 기회가 많았는데, 아티스트로는 뉴욕 필하모닉 수석 트럼펫 주자인 Colin Williams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연주를 같이 하였습니다.

정중한 저는 현재 미국에서 솔로리스트, 앙상블 주자 또한 작곡가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Texas International Piano Festival 및 Brevard Summer Music Festival을 포함한 다수의 페스티벌에서 매년 초청을 받아 연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곡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세계적 명성의 Carnegie Hall을 비롯하여, Hatch Recital Hall, Brevard Music Center에서 초연했고, 많은 대학에서 초청받아 연주하였는데, 학교로는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at Chattanooga, University of Montevallo, Delta State University, Mississippi College, Idaho State University 등이 있습니다. 카네기 홀에서의 연주와 제 작품은 뉴욕 콘서트 리뷰 (New York Concert Review)에서 소개되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김주혜, 정중한 저희 부부는 선생님께서 단순히 음악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닌 음악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나 고민을 함께 생각하며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할 학교 박사학위에서 어렵지 않게 길라잡이가 되어 주는 것도 교수로서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학생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것 외에 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멘토 역할이 되어 줄수 있다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언제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셨는지요.

김주혜 저희는 오�크랜드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교수님께 사사를 받았고 같은 피아노 스튜디오에서 연습할 기회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음악적 열정이 같았기에 공통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유학은 제가 1년 먼저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장거리 연애가 시작 되었어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7년 장거리 연애 후 결혼하고 나서도 2년간 계속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Lee University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져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더욱 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메워 줄 수 있고, 연주할 때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서로 냉정하게 관찰해 주며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부가 된 것 같아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어 힘든 점이나 즐거운 점을 서로 이해해 주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번 오�크랜드를 방문하게 된 계기는요?

김주혜 저는 이번 5월 26일(토) 저녁 7시 30분에 조성규 지휘자님이 이끄시는 Love & Peace 오�크랜드 챔버 앙상블과 함께 연주가 있습니다. 긴 유학생활 후 처음으로 뉴질랜드에 돌아와서 교민 여러분과의 첫 무대인데, 특별히 이번에 Love & Peace 앙상블 10주년 기념으로 갖는 무대로 지휘자님, 무대를 같이 하실 모든 연주자님을 비롯해 저에게도 많은 의미를 줄 수 있는 연주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연주회에서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저희 오빠와 한 무대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오랫동안 저희 남매가 소망하던 일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번에 같이 협주하는 곡 또한 저희 남매에게 특별한 데요. Mozart Piano Concerto in C Major No. 21 K. 467로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에 제가 이 곡을 칠 때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때는 오빠와 어머니



사진 | University of Montevallo 에서 오픈 마스터 클래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가 관객으로 오셨었는데, 그때 연주 후에 오빠와 언젠간 같은 무대에서 이 곡을 연주하면 좋겠다고 얘기 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참석하시지 못해 아쉽지만, 분명 하늘나라에서 많이 자랑스러워 하시리라 믿습니다. Concerto는 총 3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2악장은 들으시면 ‘이 선율 아는 선율인데?’ 하실 정도로 잘 알려져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곡입니다. 모짜르트 특유의 오페라 같이 노래하는 듯한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 쉽게 감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진 | 2017년 Lee University 여름 피아노 페스티벌에서 참가하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정중한 저는 5월 14일(월)에 저녁 7시에 모교인 오클랜드 음대 리사이틀 홀에서 솔로 리사이틀을 할 예정이고 며칠 간격으로 음대 피아노과 학생들과 함께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졸업 후 정말 긴 시간이 흘러 이렇게 모교에 와서 학생이 아닌 교수의 신분으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솔로 리사이틀에는 베토벤, 스크리아빈, 라벨과 부조니 곡을 연주할 계획입니다. 이 네 곡은 각 작곡자들의 독특한 스타일을 아주 잘 보여주는 곡들입니다. 각각의 곡들이 특징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즐겁고 흥미롭게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부조니 곡은 바흐가 바이올린을 위해 작곡한 Chaconne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것으로, 피아노의 악기가 주는 웅장함과 기교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연주를 시작으로 개인 독주회를 비롯하여 피아노 트리오 (Lee Trio) 연주와 마스터 클래스를 태국, 베트남, 중국을 거쳐 한국에서 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는 부산에 있는 오케스트라와 Rachmaninoff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협연합니다. 두 달간의 투어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Lee University에서 개최하는 피아노 페스티벌을 주최합니다. 오는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오클랜드 음대에서 저희 부부의 담당 교수님이었던 Rae de Lisle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교육자인 Ann Schein과 더불어 Lee University 피아노 교수님들이 참가하십니다. 피아노 공부를 하고 계신 학생들과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학생들에게 참가하시는 교수님들의 개인 레슨, 마스터 클래스 그리고 좋은 연주들을 감상하실 수 있어 유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학업 중인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연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희 페스티벌 기간 중에 피아노 대회도 같이 개최하니 관심 있으신

학생들이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웹사이트는 <https://www.leeuniversity.com/piano/> 이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이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제 이메일은 jjung@leeuniversity.edu 입니다.

두 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미국에서 음악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분들께 정보와 도움을 주기를 원하며 또 저희를 통하여 용기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뉴질랜드에서도 정기적으로 연주와 마스터 클래스를 할 계획이고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연주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분들과 음악적인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요즘 학업 진로나 졸업 후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 결코 쉽지 않지만 본인이 후회하지 않게 노력을 하셔서 정말 원하는 분야에서 목적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친구와 가족들과 항상 대화하고 그들의 조언을 얻으며 길을 개척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K



사진 | Lee University에서 솔로 리사이틀 연주